

성령님을 기다리라.

성경본문 <사도행전 1장 1절 ~ 11절>

[1]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주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하여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책(누가복음, 사도행전)은 한 권이었던 것으로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저자가 누가이기도 했고, 또 사도행전 처음에, “먼저 쓴 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누가복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서두이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미리 이야기하신 말씀을 정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신 일, 그리고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많이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독려**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에 있습니다.

1.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말씀이 다스리시는 시간입니다.

[4]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터이니,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기쁨으로 함께 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주님의 부재와 두려움과는 다른,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이 어떻게 오신다는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어떤 식으로든 오실 것이고, 제자들은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불가사의한 일을 기다리는 셈인 것입니다.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 말씀 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2. 성령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영역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역에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은 제자들이 원했던 일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건, 또한 원했건,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은 증인이 될 것이고, 권능을 받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도 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외에, 앞으로의 삶에서 보여주실 새로운 일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이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일인데,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누리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일들에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지경을 뛰어넘는 은혜, 한 번도 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제목>

1.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
2. 성령님과 함께 한계를 뛰어넘게 하소서.